

# 금융시장 ‘오바마 효과’ 반짝?

## 실물 부진 공포 ... 전 세계 주가 동반 하락 코스피 1,100 붕괴·환율 1,300원대 급등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벅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당선 효과는 ‘하루 천하’였다.

6일 금융시장은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날 미국 증시가 폭락한 후폭풍으로 다시 ‘패닉’ 상태에 빠졌다.

◇ 다시 고개 든 실물부진 공포 =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무려 89.28포인트(7.55%)나 폭락하며, 1,000선(1,092.22)으로 주저앉았다. 전날 코스피지수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 효과로 28.15

포인트 올랐지만 하루 만에 세 배 이상의 폭으로 떨어졌다. 코스닥지수도 28.89포인트(8.47%) 빠지면서 311.96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64.8원이나 폭등하며 1,300원대(1,330.8원)로 다시 치솟았다.

두드러진 악재가 없는데도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전날 폭락한 미국·유럽 증시와의 동조화 현상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미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실물 경제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부각하면서 잠재해있던 불안 심리가 표면화된 것으로 진단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연구원은 “어제 미국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동조화 현상의 일환으로 국내 주가도 하락한 것 같다”며 “결국 실물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면서 금융 부문을 억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푸르덴셜투자증권 이영원 투자전략팀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도 경기 방향을 돌려놓을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은 “금융위기가 정점을 지나 본격적으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며 “각국의 금융 불안 치유책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금융시장이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국 외화채권 신용도 다시 악화 =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이 발행하는 외화채권에 대한 신용도도 악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외화채권의 신용위험도는 한미 간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 무렵인 지난달 27일 이후 줄곧 회복 추세였으나 이날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

5일 기준 2014년 만기 외국환평형기

금채권에 붙는 가산금리는 전날보다 0.45%포인트 올라 5.19%가 됐고 2013년 물 외평채 가산금리는 0.28%포인트 상승한 4.92%, 2016년 물 외평채 가산금리는 0.42%포인트 된 5.44%를 기록했다.

5년 만기 외화채권의 신용부도스왑프(CDS) 프리미엄은 0.55%포인트 오르며 3%대(3.07%)로 복귀했고 국내 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채권의 CDS 프리미엄도 0.24~1.05%포인트 오르면서 3.56~4.47% 수준으로 올랐다.

외화 유동성 사정도 조금 나빠졌다.

국내 외환 스와프 시장에서 현·선물 환율 간 차이인 스와프 포인트는 3개월물 기준 -15.00원으로 전날보다 0.50원 하락했다. 달러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 증시 공동펀드 5천억 조성

#### 이달부터 매달 1,000억씩 투입

증권 유관기관들이 증시안정을 위해 5천억원 이상의 공동펀드를 조성, 이달부터 증시에 투입한다.

6일 증권협회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4개 증권유관기관은 5천150억원의 공동펀드를 조성해 이달부터 20일마다 매달 1천300억원씩 증시에 투입한다. 펀드 출연금액은 거래소 2천500억원, 예탁결제원 2천100억원, 증권협회 500억원, 자산운용협회 500억원 등이다.

펀드는 상장주식과 국공채를 8대 20의 비율로 투자하고 상장주식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을 8대 20으로 투자비중을 조절해 3년간 운영된다. 상장주식은 지수를 추종할 수 있도록 인덱스펀드로 조성될 예정이다.

증권 유관기관들은 조만간 자산운용사 10곳을 선정, 515억원씩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엔 조성된 펀드규모는 2003년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 4천억원보다 1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연합뉴스

## 은행 中企대출 ‘요지부동’ 정부 전방위 압박에도 안 늘려 ... 양극화 심화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대책에도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지 않고 있다.

대신에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들을 상대로는 적극적으로 대출영업에 나서 중기와 대기업간 대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전방위 압박에도 은행들 ‘꿰꿨’ =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은 2조6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7조 4천억원에서 5월 5조 8천억원으로 줄어든 뒤 6월과 7월에도 5조~6조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8월 1조 8천억원으로 급감한 뒤 9월에도 1조 9천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지난달 중기 자금난을 덜어주고자 은행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을 4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원토록 하고 은행 경영실태 평가 때 중기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비중 등을 높이겠다고 은행을 압박했다.

연합뉴스

이런 각종 조치에도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둔화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면 결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 악화라는 부담감으로 돌아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 CP금리 7년래 최고 ... 대기업도 은행에 ‘SOS’ = 은행들은 지난달 대기업대출을 5조원 가량 늘렸다.

이는 2001년 한은의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지난달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보다는 2배가량 많은 수치다.

은행권의 대기업 대출 증가액은 지난 6월 1조4천억원에 불과했으나 8월 2조1천억원, 9월 3조2천억원 등으로 늘고 있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회사채 발행 금리가 급등하자 은행 쪽으로 발길을 돌린 것.

연합뉴스



원더풀! 쏘울 미국지역 자동차 관련 유력지 기자단이 6일 기아차 광주공장을 방문, 쏘울이 생산되고 있는 1공정 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기아차 제공)

## “기아차 ‘쏘울’ 디자인 넘버원”

### 美 자동차 관련 기자단 광주공장 견학

“넘버원 디자인 쏘울!”

미국지역 자동차 관련 유력지 기자단이 광주공장을 방문하여 최근 새롭게 출시한 쏘울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6일 미국지역 자동차 관련 기자단을 초청, 쏘울 생산라인 견학과 시승행사를 가졌다.

내년 1월초 미국시장 런칭을 앞두고 실시된 이번 행사에는 모토 트렌드(Motor Trend), 오토위크(AutoWeek), 오토모빌 매거진(Automobile Magazine) 등 미국지역 주요 자동차 관련 기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주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최근 시장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쏘울에 대한 제품설명을 경험한 후 쏘울이 생산되고 있는 1공정 라인견학을 갖고 이어 직접 드라이빙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미국기자는 대도시 한복판 자리잡은 광주공장의 지리적 특성에도 친환경적인 깨끗한 공장환경 가운데 자동차를 생산하는 모습과 쏘울이 직접 만들어지는 광주1공정의 최첨단 자동차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쏘울을 운전해본 미국 모토트렌드(Motor Trend)의 엘리슨 핸워드 기사는 “감쪽하고 귀여운 실내의 디자인과 파워풀한 엔진성능의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쏘울이 한국과 미국의 여성고객과 젊은층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출시한 신개념 CUV 쏘울은 지금까지 약 6천 여대가 판매됐으며, 내년 1월초 미국시장 진출을 앞두고 성공적인 미국시장에서의 초기 붐 조성을 위해 품질과 생산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내수 부진 가속 ... 성장·고용 둔화”

### 재정부 보고서 ... 글로벌 경제 침체 하방경직성 커져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의 내수 부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성장·고용 둔화 추세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재정부는 6일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내수 부진의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하방위험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9월 광공업생산은 조업일수 증가 및 수출 호조로 작년 동월 대비 6.1% 증가했지만 조업일수 조정을 감안하면 0.8% 감소했다.

9월 소비재판매 역시 파업 영향으로 인한 승용차 판매 감소, 의복 등 준내구재 소비 감소로 작년 동월 대비 (-2.0%) 및 전월 대비(-3.8%) 감소세로 전환됐다.

아울러 9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만2천명 증가하는데 그쳐 고용부진이 심화되고 있고 9월 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비)와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각각 10개월과 8개월 연속 하락했다.

10월 수출 증가율은 10%로 올해 1~9월 평균(22.7%)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다만 9월 경상수지 적자는 12억2천만 달러로 8월(-4억 달러)에 비해 축소됐고 10월 경상수지는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당초 전망(15억 달러) 보다 흑자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고용의 질’ 향상 위해선 역외 부품산업·공공기관 유치 중요”

### 광주·상의 고용포럼 주제발표

광주·전남지역의 산업현장에서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대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내 주력산업과 관련이 있는 역외 부품산업,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승기)가 7일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제 15차 광주·전남 고용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성우(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광주·전남지역 노동시장 고용의 질 측정과 향상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홍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광주지역의 임금수준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30인 이상 상용근로자 기준에서는 부산·대구 다음으로 고용의 질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고용의 안정성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광주는 43.6%로 부산 53.0%, 인천 52.1%, 대구 51.1%, 서울 49.2%에 이어 5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임금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감소, 고용안정성에서는 바람직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유가환급금 누락자 ‘지금 신청하세요’

#### 국세청, 이달 말까지 추가 접수

여러가지 이유로 지난달 소속회사 등을 통해 유가환급금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국세청은 6일 올해 중도 퇴직한 사람이나 지난달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가운데 유가환급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이달에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11월에 추가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총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자들이다.

지난달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로제공 확인서 등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입증 서류 등 부대서류를 세무서에 보내야 한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세이씨엔티	경리, 사무관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1	062-959-1261
와이에스피	전기판별/건설 보수 공사 경력직	고졸/경력5년	2400~2600	11/12	062-945-9841
삼성에버랜드	(광주)시설관리(기계부문) 인력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11/12	02-2126-6205
프로스펙스	신세계백화점 프로 스펙스 매장관리 및 판매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2	062-360-1859
흥국생명화재	[주5일근무/내근제]본사직영 남녀 TM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3	062-410-1414
한양엔스엔씨	러시아,중국 해외영업직 및 회계,법무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3	062-382-1311
깨끗한사람들	건축기사 경력직	초대졸/경력3년	2200~2400	11/13	062-611-2301
햇살 가득한 집	그라픽(일리메이테) 디자이너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3	062-527-7935
시사영어전문학원	시사전문학원 토크/토플 강사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4	062-224-1509
윌인컴	정규직 웹디자인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14	062-225-2112
성경엘리베이터	승강기(엘리베이터) A/S 수리 보수 정비 관리	고졸/경력1년	1600~1800	11/14	062-528-0461
해디안모유	경리, 회계, 사무보조 여사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1/15	062-385-9395
헤어컷도	봉선동요프팀/초보/경력직 피부관리사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15	062-228-226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재벌 총수 8% 지분으로 40% 이상 의결권 행사

재벌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한 의결권 있는 계열사 지분은 8%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40%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재벌의 소유자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재벌 총수가 있는 2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812개 계열사의 올해 4월 1일 기준 소유자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는 의결권 있는 지분의 8.04%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수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유지분율은 40.51%로 파악됐다.

의결지분율에서 소유지분율을 뺀 소유자배과리도는 32.47%로 작년에 비해 0.77%포인트 상승했고 기업집단별로 자본금 비중을 부여해 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평균 의결권승수는 7.39배로 작년에 비해 0.34배 높아졌다.

총수가 계열사나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쳐 직접 소유지분의 7배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소유지분율이 6.02%, 의결지분율은 38.57%였다. 이들의 소유자배과리도는 32.55%로 1년 전에 비해 1.19%포인트 상승했고 의결권 승수도 8.06배로 0.52배 높아졌다.

의결권승수는 SK가 17.05배로 가장 높았고 동양(15.18배), 한화(12.26배), 두산(8.55배), 삼성(8.09배), STX(7.81배), 금호아시아나(7.06배) 등도 7배 이상이었다.

연합뉴스